

서울시, 청년취업사 등서 AI 인재 1만명 키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오세훈 시장 'AI 서울 콘퍼런스'

연내 취업사관학교 25개 캠퍼스 조성 총 6억 이공계 석사과정 장학금 신설

서울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혁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투자 확대 등 AI 산업 육성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AI 서울 2025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연간 AI 인재 1만명을 배출, 산업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올해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25개 캠퍼스 조성을 완료하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



오세훈 서울시장(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시로 만드는 조화로운 사회를 주제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성을 목표로 교육 과정을 재편한다. 이공계 석사 과정 장학금 제도(총 6억 원, 60명 지원)도 신설한다.

양재 AI 혁신 지구엔 '서울 AI 테크 시티'(연면적 27만㎡)를 만든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국내·외 대학원부터 세계적인 연구 기관, 문화·주거공간까지 갖춘 '직·주·락' 복합 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AI 분야 펀드를 조성한다. 생성형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기술을 디자인, 뷰티, 패션 산업과 융복합해 AI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해외 우수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AI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및 연구소(캐나다 이바도, 독일 사이버벨리 등), 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서포트하고, 글로벌 AI 연구소·기업 유치를 추진해 AI 혁신 기술 개발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는 미래 첨단 산업의 초점이 인공지능 분야로 모인 상황에서 AI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인재까지 수혈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모든 산업을 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발 빠르게 육성·재편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명실공히 글로벌 AI 3대 강국의 중심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미아역 오폐산 일대 7500세대로 재탄생

서울시, 2개소 신통기회 확정

4호선 미아역 500m 앞, 오폐산 자락 구릉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숲을 품은 7500세대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 보행·녹지·경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 실현성을 높인 대규모 주거 단지가 탄생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다각도의 사업 실현 방안을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용도 지역 사항(제1종→제2종주거), 유연한 높이 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 계획을 수립했다"며 "또 '2030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사업성 보정 계수 등을 도입해 사업성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활용도가 낮은 기존 공원을 구역에 편입해 확대 재조성하고, 기반 시설을 복합화해(상부공원+하부도로·체육시설)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였다.

급경사와 기형적인 도로 구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도로 체계도 손질했다. 오폐산로 구간 확폭(2→4차선)과 미아동 남동측 도로 신설을 통해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김현정 기자



인하대가 최근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을 발굴하고,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하대

교육발전 기여 우수교육상 8인 시상

인하대, 강의·교수역량 등 평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을 발굴하고,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우수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하대는 지난 2개 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이 작성한 강의 평가와 교수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함평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전자재료물성' 강의에서 이론과 프로젝트 수행을 균형 있게 구성해 협업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고자 한 점에

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형준 고분자공학과 교수는 '유기화학 1' 수업에서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구조역학' 강의로 수상한 이상열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어려운 전공 개념을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접목하고,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장경호 사회교육과 교수는 '국가경제의 탐구와 연습' 수업에서 미래 교사가 될 학생들이 경제 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강남·광운대 등 8곳 OT현장 찾아 안전점검 실시

이외 대학에도 안전확보 지침서 발송 숙박·마약 등 사전교육 여부 점검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대학 신입생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학의 신입생 예비교육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진행된다. 1000명 이상이 교외에서 숙박하는 신입생 예비교육을 개최하는 대학 중 참여 학생 수와 지역 등을 고려해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8개 대학은 강남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대학에 통보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점검 대상이 아닌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학생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

도록 각 대학에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지침서'와 함께 자체 점검표를 안내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숙박시설 안전성, 차량 및 운전자 적격 확인, 마약·음주·폭행 등에 대한 학생 사전교육 실시 여부, 단체활동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예비교육 실시 전부터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성폭력, 음주, 화재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안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학 축제, 체육활동 등 대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



윤대진 건국대 글로벌식품스트레스연구소 연구팀이 식물기 가뭄을 견디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사조절인자(transcription factor)의 활성화 메커니즘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물 과학 및 농업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New Phytologist (IF=8.3)에 1월 31일 온라인 게재됐다.

윤대진 건국대 연구팀 가뭄 견디는 식물의 핵심 '전사조절인자' 밝혀냈다

건국대학교는 윤대진 글로벌식품스트레스연구소 연구팀이 식물기 가뭄을 견디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사조절인자(transcription factor)의 활성화 메커니즘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물 과학 및 농업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New Phytologist (IF=8.3)에 1월 31일 온라인 게재됐다.

윤대진 교수(교신저자, 건국대 의생명공학과), 샤자린 박사(제1저자, 건국대 글로벌식품스트레스연구소), 알리 악타 박사(공동 제1저자, 건국대 글로벌식품스트레스연구소)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에서는 식물이 건조한 환경에 놓였을 때 가뭄 저항성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분석했다.

식물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식물은 ABA(압시스산)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이 신호를 전달해 기공을 닫고 수분 증발을 막는 방식으로 생존을 돕는다. /이현진 기자

화성특례시, 지역발전지수 '전국 1위'

지역경쟁력지수·주민활력지수 성과

화성특례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지역발전지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지수는 ▲생활 서비스 ▲지역경쟁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4대 영역별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화성특례시는 이 가운데 지역경쟁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에

서 2회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는 산업 기반, 소득 수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인구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거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속적인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인프라 확충,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성특례시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학원 수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발전지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93세 김순옥씨 등 570명 초·중 학력 취득

서울시교육청, 만학도 졸업식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일 서초구 방배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 학력을 취득한 만학도 570명의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67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초등, 중학 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가족과 지인 등 1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졸업생들의 성취를 축하할 예정이다.

졸업생 중 최고령자인 김옥순 학습자(93세)는 "중학교 공부를 간절히 원했지만, 살다 보니 기회가 없었다"

라며 "나이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후배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퓨전국악그룹의 전통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2024년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수상한 '세프와 낭디키(결혼이주여성)' 학습자의 자작시 낭송과 최고령 졸업생 김옥순 학습자의 답사도 예정돼 있다.

현재 서울시 내 1900여 명이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전년보다 문해교육 기관이 2개 늘어 총 69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